

시인과 화가가 함께 마음 적시다



‘시인-화가 시화전’
30일 익산 모던갤러리서

‘전라도 웃넙 중견 시인-화가 시화전’이 오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익산시 ‘모던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무렇지 않게 맑은 날’ (문학과지성사)로 유명한 진동규 시인의 자필 시와 그림, ‘하지 무렵’ 등 절절한 전라도 판소리 가락의 시집을 20권이나 출간한 조 기호 시인의 시와 이승우 화백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서릿길’ (문학동네) 등 5권의 시집을 낸 전북대 국문과 김익두 시인의 시와 전북의 원로 화가 박중수 화백의 그림, 원광대 국문과 대학원을 나와 최근 가장 활발한 평론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평론가 겸 시인 호병탁 시인의 시와 박중수 화백의 그림, 그리고 화가이자 시인이기도 한 박미서·선산곡 씨의 시와 그림 등이 걸린다. 자필로 꼭꼭 적어내려 간 시어와 그에 맞는 화가의 그림이 조화를 이뤄내며 지친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하는 전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화전이 끝나면 전시했던 시들은 이후에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익산문화재단에 기증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이난초 명장,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문화재청,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선정

남원시립국악단 예술총감독으로 재직 중인 이난초 명장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남원시에 따르면 이난초 명장은 지난 2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전승능력과 전승환경, 전수활동 기여도가 탁월한 점을 인정받아 30일 간의 인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선정됐다. 국악계통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접했던 이난초 명장은 1967년 고(故) 김상용 선생께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해, 지난 1980년부터 고(故) 강도근(1918~1996) 전 보유자에게 입문, 흥보가를 이수했다.

특히, 그녀는 전북 남원을 기반으로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풍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해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하며, 다양한 전승활동과 함께 많은 제자를 양성해 왔다. 이완주 시장은 “풍편제 탯자리이자 소리의 고장, 남원에서 이난초 명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보유자 인정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작은 업적”이라면서 “남원시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통해 소중한 문화재가 보존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전북문화관광재단, 찾아가는 행정교육 진행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은 권역별로 ‘찾아가는 행정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정읍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6월 30일), 진안청소년수련관(7월 1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7월 2~3일)에서 전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교육을 실시한다. 그동안 행정교육은 재단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유아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합해 대규모로 진행해왔지만,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권역별로 찾아가는 소규모(소수 정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행정교육’은 지원사업 운영을 위



한 행정적 절차와 연간 운영계획 공유를 통해 단체가 체계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 교육도 진행해 명확한 보조금 집행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r.or.kr)와 문화예술교육팀(063-230-7451~6)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토탈공예를 통한 ‘자립·자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토탈공예지도사양성교육 수료생 작품전시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윤에 센터장)는 지난 26일 센터 로비에서 창업공동체(공동체명 코스모스) 결성을 다짐하는 첫 번째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탈공예지도사양성교육은 취업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도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5일부터 100시간 동안 전문, 실습, 소양 등 취·창업교육을 추진했다. 훈련생 20명 전원이 수료와 함께 창업의 첫 준비단계인 공동체결성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의 높은 취·창업 욕구에 부응하고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단순 ‘보호’에서 ‘자립·자활’ 전환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예비 창업공동체인 ‘코스모스’ (가칭) 활동의 출발점으로 의미를 부여한 작품전시회는 훈련기간 동안 실습을 통해 제작한 천연비누, 비즈 악세서리, 손뜨개와 향기 테라피 제품인 석고 방향제, 향초, 천연화장품 립 글로스, 핸드크림 등 20여 가지 품목에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였다. 작품전시회에 참여한 중국 국적 위춘지에 훈련생은 “토탈공예지도사 양성교육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기쁨이다. 평소 관심 있던 만들기에 소질이 더해져 시간이 가는줄

몰랐다”며 “사실 중국 공예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훈련기간 동안 습득한 기술을 토대로 중국과 한국을 아우르는 작품제작은 물론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해 1~2년 후 나만의 창업을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시공동체지원센터 김창환 센터장은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창업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며 “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이 공동체 발굴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만큼 결혼이민여성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윤에 센터장은 “전시회 작품이 전문가 수준이다. 여성특유의 섬세함이 더해져 상품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결혼이민여성들이 전문가로서, 창업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 멘토 연계, 심화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창업모델 개발, 연계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 전주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전주시공동체지원센터, 전라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등과 창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 063)254-3601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